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마철 축사 관리

정읍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는 단순 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질병을 확산시켜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집중호우로 축사 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장마철을 맞아 축산농가에 가축과 시설물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장마 기간 축산농가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크게 △축사 분뇨 저장시설 점검 △축사 내 깔짚 관리 △장마 후 환기 등이 다.

축사의 경우 비가 자주 오고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갑작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축사 시설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착한가격업소' 정비

정읍시가 이달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물가안정업소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2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에 기존 27개소의 가격·위생·청결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 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장기포지 사적지정을”

고창군 동학혁명 학술대회… 기념공간 마련 당위성 초점을 역사교과서에 수록 '혜거'… 조선 후기 칼 전시 눈길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학술대회가 올해로 열일곱번째를 맞이한 가운데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무장기포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기념공간 마련의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사)호남사학연구회(책임연구원 신순철)와 함께 '제17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지정과 기념공간 조성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정남기 고문이 기조강연을 맡아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운동을 제안한다"고 강조했고, 이재운 교수(전주대·전북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전북의 지방사와 사적지정의 의의와 방향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본행사에선 이동희 관장(전주역사박물관, 예원대 교수)이 '19세기 후반 무장 일대의 지역정세와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발표했다.

이 관장은 "동학 지도자 전봉준이 고창출신 이었기에 고창에 협력기반이 많았었고, 호남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무장 순화중도의 인적·물적 동원능력에 착안 대접주를 찾아와 피신하며 봉기를 준비했다"며 고창에서 대규모 농민봉기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진주 원장(현대문화재단연구원)이 '조선 후기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 일대의 지형연구', 조법중 교수(우석대 역사교육과) '무장기포지의 범위와 기포공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힘을 보탤다. 김해근 예술감독(심아트연구소)은 '전봉준 생가터와

무장기포지 기념공간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에는 신순철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무장기포지를 중심으로 한 전문 토론회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배형섭 교수(성균관대), 광장군 교수(군산대 역사철학부), 신영우 명예교수(충북대 사학과), 진상철(한국전통문화재단) 교수가 참여했다.

또 이날 무장기포지 일대에서 발견된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후기 칼(刀)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별로 제작·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유족회 등과 17차례에 걸친 학술토론회 자료들이 쌓여 올해 한국사 모든 교과서에 무장기포가 수록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와 역사탐방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랑스러운 의항의 기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0일 김환수씨 농장의 소득품목인 상추재배 현장을 방문해 재배환경과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안군 "스마트팜 지원 강화"

권익현 군수, 김환수씨 농장 상추재배 현장 방문 격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0일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농가인 김환수씨 농장의 소득품목인 상추재배 현장을 방문해 재배환경과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 스마트팜 확대 사업과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의 필요성 등에 대해 농가의 소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전북 최초로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딸기재배를 하고 후작물로 6월부터 상추재배를 시작했다. 올해 상추재배로만 6000만원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딸기 수확 후 상추를 6월에 정식해 8월 초까지 수확할 경우 딸기 단

일작목 재배에 비해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활용해 조성된 최적 환경에서 자란 상추는 신선도가 좋고 먹는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공기열 냉·난방시설은 히트 펌프를 이용해 증발-압축-응축-팽창 구조로 된 회로를 냉매가 순환하면서 열교환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커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스마트팜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원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가소득 증대와 부안군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무장면 이광재씨, 家傳 유물 판소리박물관에 기증

청자 접시 3점 · 청자 완 1점

고창 무장면에 거주하는 이광재씨가 소장해오던 청자 접시 등 4점을 2012년 기증하여 고창판소리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유물은 기증자의 가전(家傳) 유물로 청자 접시 3점과 청자 완 1점이다. 특히 청자음각선문점시는 고창 지역 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름 14.5cm, 높이 7cm로 내연 중간 부분과 상단 부분에 이중원문(二重圓文)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광재씨는 유물 기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씨는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박물관에 보관 전시해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선뜻 기증 의사를 밝혔다.



고창 무장면에 거주하는 이광재씨가 소장해오던 청자 접시 등 4점을 2012년 기증하여 고창판소리박물관에 기증했다.

이에 고창군 문화예술과는 올 하반기 기 명예의 전당에 이광재씨를 추천해

기증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4-H연합회 대상 옥수수 수확 과제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0일 신외면 공동길 옥수수밭에서 4-H연합회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옥수수 수확 체험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4-H연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교육은

수수다 연합회는 수확한 옥수수를 개당 1,500원에 판매해 수익금을 모아 연합회 지역사회의 기부하는 등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희 회장은 "회원들 간의 소통과 역량 강화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읍시 4-H연합회가 최고의 청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 전국공모전' 열린 군민심사단 모집

고창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창군의 수려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 3분영화 전국공모전'의 열린 군민심사단 모집을 진행한다. 지난 10일 밝혔다.

고창군은 8~9월 중 3분영화 전국공모전 응모작에 대해 전국민 대상 온라인 인기투표와 전문가 심사, 열린 군민심사단 시사회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민심사단 참여자는 3분영화 전국공모전 시사회와 최종 수상작을 뽑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심사단 자격요건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중 농업농촌 3분영화 전국공모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100명 규모로 모집한다.

앞서 지난해 1회 공모전 때는 영상만 수십여편이 접수됐고, 공모전 관련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회에 달하는 등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농촌영화 전국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고창군의 뛰어난 자연경관, 관광자원, 농업문화유산 등에 대해 알아가는 행사"라며 "고창군민으로 열린 군민심사단을 꾸려 군민 모두가 공모전을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농업농촌 3분 영화 전국공모전' 열린 군민심사단 모집은 3분영화 전국공모전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uc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